



즉시 배포용: 2022년 6월 24일

KATHY HOCHUL 주지사

HOCHUL 주지사, 뉴욕시 스쿨존 과속 카메라 사용 확대 법안에 서명

**법안(S.5602B/A.10438)에 따라, 2025년 7월 1일까지 승인 갱신 및 카메라 운영 365일
24시간 확대**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뉴욕시 스쿨존 과속 카메라 운영을 365일 24시간으로 확대 및 재승인하는 법안(S.5602B/A.10438)에 서명했습니다. 주지사는 Eric Adams 뉴욕시 시장, Andrew Gounardes 주 상원의원, Deborah Glick 하원의원, 도로 안전 보장 지지자들이 동석한 가운데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지사로서 제 최우선 과제는 뉴욕 주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며, 이것은 우리 아이들이 위험을 겪지 않고 학교에 등교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저는 이번 성과를 위해 노력해주신 모든 의원들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뉴욕 주민은 언제라도 도로에서 안전을 보호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합니다. 생명을 구하는 이번 프로그램이 재승인 및 확대되지 않는다면, 너무 많은 우리의 자녀들이 자동차 사고로 사망할 것입니다."

Antonio Delgado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이들과 도로의 안전을 지키는 것, 특히 학교 근처에서 보호하기 위해 모든 것을 해야 합니다. 무분별한 운전자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심지어 사망했습니다. 오늘 제정된 새로운 과속 카메라 법안은 도보 통행자들을 과속 차량으로부터 보호할 뿐 아니라, 이러한 범죄가 일어나지 않게 방지하여 보호를 강화합니다."

현재, 차량교통법(Vehicle and Traffic Law)은 뉴욕시 스쿨존 과속 카메라 운영 시간을 평일 오전 6시에서 오후 10시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번 법안은 2025년 7월 1일까지 카메라 사용을 재승인하고 차량교통법을 개정하여 운영 시간 제한을 철폐합니다.

2013년 5개년 시행 프로그램을 통해 적은 수의 과속 안전 카메라가 뉴욕시 학교 인근에서 하루 제한된 시간동안 운영되었습니다. 해당 법안은 2019년 재승인 및 확대되어 현재 법안은 2022년 7월 1일 만료 예정입니다.

뉴욕시에서 교통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증가했으며 무분별한 운전이 평일 주간에만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뉴욕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더욱 많은 조치가 필요하다면 이번 법안 서명을 통해 Hochul 주지사는 생명을 살리는 정책을 확대하는 중요한 조치를 시행합니다.

Eric Adams 뉴욕시 시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통 안전은 공공 안전의 문제이며, 과속 카메라는 생명을 살립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수단을 365일 24시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월요일 우리는 다시 한번 도시에서 비극적인 총기 사건을 마주했습니다. 도로가 안전하지 않다면, 우리의 도시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도로를 보호하고 생명을 살리고 뉴욕시를 안전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Andrew Gounardes 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밤 10시 1분을 기해 과속 카메라 사용이 뉴욕시에서 승인된 지 9년만에 최초로 카메라가 주말을 포함해 하루 24시간 운영될 것입니다. 이 법안은 분명 뉴욕시의 생명을 구할 것입니다. 법안에 서명해주신 주지사께 감사드리고 싶으며, 또한 이번 프로그램의 전면 시행을 위해 오랫동안 힘겹게 투쟁해주신 지지자들에게도 감사를 전합니다."

Deborah Glick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학교 스쿨존 과속 카메라 법안의 최초 발의자 중 한 명으로서, 저는 생명을 구하는 프로그램이 2019년 강화되고 또 다시 올해 강화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데이터로 효과가 증명된 기술을 통해 하루 종일 안전을 확보한다면, 학교 주변의 도로가 더욱 안전해지고 생명을 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도로 안전 보장을 위한 커다란 진전이며, 도로 안전을 위한 가족 모임(Families for Safe Streets), 트랜스포테이션 얼터너티브스(Transportation Alternatives) 등 많은 분들의 열렬한 지지가 없었다면 절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중요한 법안에 서명해주신 Hochul 주지사께 감사드립니다."

교통 인프라 위원회(Committee on Transportation and Infrastructure) 위원장 겸 뉴욕시 위원회(NYC Council) 여당 원내총무인 **Selvena N. Brooks-Powers**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속 카메라, 도로 인프라 등 교통 단속 매커니즘의 적절한 활용은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홈 규정(Home Rule)을 통과시켜 법안 S5602/A10438 통과를 위한 길을 열어주신 하원 동료들께 박수를 보냅니다. 이번 법안은 뉴욕이 도시를 좀먹고 있는 교통 사고 및 사망자 증가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Donovan Richards Jr. 퀸즈 자치구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쿨존 과속 안전 카메라는 위험 운전을 막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든 연령의 뉴욕 주민의 생명을 구하는 효과가 있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이러한 카메라 사용 확대는 교통 사고를 예방하고 우리 가족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으며, 우리 도로에서 이용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커다란 진전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중요한 법안을 통과시켜주신 주의회의 파트너들을 비롯해, 법안에 서명해주신 Hochul 주지사께 감사드립니다."

Mark Levine 맨해튼 자치구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맨해튼과 뉴욕시에서 교통 사고 관련 사망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이제 그 어느때보다 스쿨존 과속 카메라 설치 등 뉴욕

주인을 보호하기 위한 상식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는 사실입니다. 과속 카메라는 뉴욕 주인을 보호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카메라가 과속이 빈발하고 뉴욕 주민이 가장 위험한 시간인 야간에도 운영된다는 사실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중요한 법안을 통과시켜주신 주지사와 주 의회 동료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들은 물론 지지자, 주민들과 도로 안전 개선을 위해 노력할 수 있기를 고대합니다."

Ydanis Rodriguez 뉴욕시 교통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과속 카메라가 생명을 살린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Hochul 주지사의 결단에 감사드립니다. 현행법으로는 가장 빈번하게 과속이 발생하는 시간에 이를 단속할 수 없습니다. Eric Adams 시장의 리더십에 따라, 우리는 곧 모든 뉴욕 주민을 지킬 수 있도록 새로운 법을 시행하고 공고할 상세하고 효과적인 계획을 마련할 것입니다."

Amy Cohen 안전한 도로를 위한 가족 모임(Families for Safe Streets)의 공동 창립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Hochul 주지사는 생명을 구하고 있습니다. 끔찍한 교통 사고로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것은 다른 뉴욕 가족들이 절대로 겪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야말로 형언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는 교통 사고 근절을 위한 정책 실시를 추진하는 이유입니다.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과속 카메라는 도로에서 발생하는 무고한 희생을 예방할 것입니다. Hochul 주지사는 물론, Gounardes 상원의원, Glick 하원의원, 기타 의회 지지자 등 이러한 목표를 위해 노력하며 다섯 개 자치구 모두에서 도로를 더욱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자신의 역할을 다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Danny Harris 트랜스포테이션 얼터너티브스(Transportation Alternatives) 사무국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속은 시간에 관계 없이 발생하며, 따라서 과속 카메라도 시간에 관계 없이 운영되어야 합니다. 과속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입증된 방법들은 모든 곳에서 하루 종일 365일 운영되어야 합니다. 시정부의 안전한 도로 재건과 함께 주정부가 시행하는 자동 단속 강화를 통해 도로를 건너는 모든 주민이 사고의 위험을 느끼지 않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번 조치에 서명해주신 Hochul 주지사와 더불어, 생명을 살리는 도수를 도입하기 위해 리더십을 발휘해주신 모든 주정부 지도자께 감사드립니다."

Kate Slevin 지역 계획 연합(Regional Plan Association) 부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극적이게도 뉴욕시에서 교통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2015년 이후 가장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과속 단속 카메라 확대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입니다. 해당 조치는 단속과 도로 설계를 함께 결합하여 도보 통행자와 자전거 이용자, 운전자 모두를 위해 더 안전한 도로를 만들기 위한 전략의 핵심 부분입니다. 이번 법안 추진을 위해 노력해주신 Hochul 주지사, Andrew Gounardes 상원의원, Deborah Glick 하원의원, Eric Adams 시장을 비롯한 기타 선출직 지도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Rena Reynolds 트라이스테이트 교통 캠페인(Tri-State Transportation Campaign) 사무국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속 카메라가 야간 및 주말에 운영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도로는 이러한 시간에 덜 붐비지만, 이 때문에 무분별한 운전자들이 과속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우리 도시의 아이, 학부모, 고령자, 도보 통행자가 학교 인근

도로에서 무분별한 운전자 때문에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우려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뉴욕시 전역의 스쿨존에서 과속 카메라 사용을 재승인 및 확대해주신 Hochul 주지사께 박수를 보냅니다. 주지사의 전면적인 지원으로 뉴욕시의 교통 사고 사망자가 크게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Sara Lind 폴리시 오픈 플랜스(Policy at Open Plans) 국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도로를 더욱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주신 주지사와 법안 지지자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과속 카메라 프로그램 확대는 공공 보건 위기 해결을 위한 중요한 첫 걸음입니다. 카메라는 도로 안전 보장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이며, 도로 재설계와 속도 제한 강화 등 상식적인 조치를 확대하여 우리는 교통 사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Ken Podziba 바이크 뉴욕(Bike New York) 대표 겸 최고경영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통 사고 사망자, 특히 야간 사망자가 최고 수준으로 증가한 가운데, 우리는 Hochul 주지사를 비롯한 주정부 지도자들이 과속 카메라 운영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교통 사고 감소가 반드시 시정부 및 주정부 수준에서 선출직 공무원의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위험한 운전을 막고 불필요한 희생을 줄일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해주신 주지사께 감사드립니다."

Eric McClure 스트리트팩(StreetsPAC) 사무국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법안에 신속하게 서명해주신 Hochul 주지사와 더불어,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해주신 Gounardes 상원의원과 Glick 하원의원께 감사드립니다. 운전자들은 더 이상 야간이나 주말에 과속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모든 뉴욕 주민이 더욱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데이터는 카메라가 운영되지 않을 때 난폭 운전이 얼마나 증가하고 카메라가 운영될 때 과속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분명히 보여줍니다. 상식적인 법안이 도로 안전 부문에서 획기적인 효과를 일으킬 것입니다."

###

다음 웹 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구독 취소](#)